

이용 안내 1

외다이세츠 (表大雪) 구역

이 공원의 최북부에서 아사히산(旭岳) 주변 구역이다. 구로다케산(黒岳)과 아사히산(旭岳)의 산중턱까지 로프웨이가 연결되어 등산은 비교적 용이하다.

소우운교우(層雲峽)와 텐닌교우(天人峽)의 탐승은 p24~25 참조. 아사히카와시(旭川市)가 이용의 기점이 되며, 버스 또는 철도와 버스를 갈아타고 공원으로 들어간다.

구로다케산 (黒岳 1,984m)

소우운교우(層雲峽) 온천에서 로프웨이와 리프트를 갈아타고 고도 약 1,500m 까지 올라가, 남은 480m를 오르면 구로다케산(黒岳)의 정상이다. 다이세츠잔(大雪山) 중앙화구를 바라볼 수 있다. 산정상은 좁지만, 그 앞의 능선은 폭이 넓다. 주변일대는 성주풀 등 식물의 종류가 많은 곳이다. 구로다케산에서 「오하치다이라(御鉢平)」라고 불리는 화구연을 따라서 호쿠친산(北鎮岳)의 기슭을 돌아 스소아이다이라(裾合平)에서 아사히산(旭岳) 로프웨이까지 가는 것이 유명한 코스이다. 오르락 내리락은 심하지만, 화구의 반대측을 돌아 아사히산을 넘어 로프웨이까지 갈 수도 있다.



오하치다이라 (御鉢平)



쿠로다케산 고고우메 (黒岳五合目)의 전망

누마노다이라 (沼の平)



토우마넛코시 (当麻乗越) 에서 본 누마노타이라 (沼ノ平)

아사히다케(旭岳) 온천의 북쪽에 있는 아이잔케이(愛山溪) 온천에서 온다. 아이베츠산(愛別岳) 중턱에 펼쳐진 고요한 습지의 연못이 아름답다. 토우마넛코시(当麻垂越)를 넘어 스소아이다이이라(裾合平)에 도달하는 코스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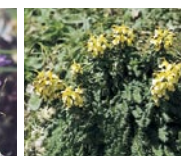
아이잔케이 (愛山溪) 에서 누마노타이라 (沼ノ平) 를 향해

긴센다이 (銀泉台) 에서 아카다케산 (赤岳 2,078m)

아카다케산의 산기슭 긴센다이(銀泉台)까지는 소우운교우(層雲峯) 온천에서 버스가 있다. 제일 화원, 제2 화원을 거쳐 아카다케산(赤岳)에 오르면, 외다이세츠(表大雪)의 산들을 조망할 수 있다. 아카다케산으로부터 코이즈미산(小泉岳)까지는 산의 형태가 옛부터 형성되고 있어 두메자운과 키바나시오가마(현삼과 식물) 등 희소식물이 많은 지구이다.



2008



키바나시오가마
(*Pedicularis oederi*)
현삼과식물)



아카다케(赤岳)산정상에서 본 아사히산(旭岳)방면

아사히산 (旭岳 2,291m) · 스소아이다이라 (裾合平)



아사히산 (旭岳) 과 게움 펜타페탈룸 (장미과 식물)

아사히산(旭岳) 온천에서 표고 약 1,600m의 스가다미(娑姁)역까지 로프웨이
가 있다. 연기를 활발히 뿜어올리는 아사히산의 말굽형의 화구가 정면으로 보인다.
아사히산이나 구로다케산(黒岳) 방면 등산의 출발점이지만, 단시간의 탐승에
는 가까운 스가다미케연못(娑姁池)과 메오토연못(夫婦池) 그 앞에 펼쳐진
스소아이다이라(裾合平)을 돌아보는 탐승로가 있다. 스소아이다이라에는 게움
펜타테팔룸(장미과 식물)의 대군락이 있어꽃이 피는 시기와 단풍이 들 때에는 매
우 아름답다. 스가다미역과 산기슭의 온센(温泉)역 사이에는 보도도 있다. 아사
히산에는 식생이 별로 없는 자갈길을 오른다. 구로다케산을 거쳐 소우운교우(層
雲峽)에는 화구연의 어느 쪽을 돌아도 갈 수 있다.



코우겐 (高原) 온천 · 연못 (沼) 둘러보기

다카네가하라 (高根ヶ原) 아래 삼림에는 작은 연못이 많이 있다. 코우겐 (高原) 온천을 출발하여 연못을 돌아보는 트레킹코스는 가을 단풍철에 특히 인기가 높다. 이 시기는 자가용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코우겐온천까지는 소운교우 (層雲峽) 에서 버스가 있다. 보도입구에 있는 불공정보센터에서 반드시 지도를 받아 출발하자. 불공과 만날 위험이 있을 때는 보도가 폐쇄되기도 한다.



코우겐온천 (高原温泉) 의 하이킹족



산 전체를 물들이는 단풍

다이세츠산 (大雪山) 의 단풍은 빠르게는 9 월 중순을 지날 무렵에 고산대에서 시작된다. 우라시마 철쭉과 게음 펜타페탈룸 (장미과 식물) 등의 작은 식물이 불타는 빨강으로 물이 든다. 단풍은 빠르게 산위에서 아래쪽으로 물들어 가며, 삼림대에 들어가면, 마가목, 사스레나무, 에조고로쇠, 계수나무 등의 나무들이 빨강, 황금, 노란색으로 물들어 산 전체가 아름다운 비단처럼 장식된다. 눈이 모든 것을 다 덮기 직전까지는 식물들의 향연이다. 코우겐 (高原) 온천 주변의 단풍은 특히 선명하다.

다이세츠 (大雪) 에 찾아온 가을



토무라우시산 주변

다이세츠 (大雪) 화산의 중앙 화구에서 남쪽, 다카네가하라 (高根ヶ原) 로부터 토무라우시산에 걸친 구역은 이 공원에서도 가장 「카마이민타라」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곳이다. 광대한 대지,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는 고산식물군락, 여기 저기 보이는 주빙하지형 등, 천상적인 세계가 전개된다.

이 지구는 당일치기 등산이 곤란하고, 피난산장을 이용하든지 텐트를 지참할 수밖에 없다. 토카치 (十勝) 연봉 등을 포함한 다이세츠산 지역에는 일본 알프스에 있는 것과 같은 설비가 갖추어진 오두막은 없다. 구로다케산 (黒岳) 석실 (石室) 과 하쿠운산 (白雲岳) 산장은 여름철에만 관리인이 있고, 그 외 츄우베츠산 (忠別岳), 히사고누마 등의 산장은 모두 무인이다. 또, 캠프는 지정지 이외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등산에 대해서는 각지의 탐방객안내센터 등에 문의하고, 최신의 정보를 얻은 후 신중한 계획을 세우면 좋다. 주된 루트는 눈내리지 않는 시기라면 기술적으로 어려운 코스는 아니지만, 장거리이므로 상급자용이다.



누마노하라에서 토무라우시산으로



토무라우시산의 종주로



폰카운산의 고산식물군락

칼럼

홋카이도 (北海道) 의 빙하 흔적

홋카이도의 빙하지형으로서 다이세츠산 (大雪山) 계의 남쪽에 있는 히다카 (日高) 산맥의 카르 (소규모의 빙하가 만든 반원형의 얇은 골짜기) 가 잘 알려져 있다. 히다카 산맥보다 표고가 높은 다이세츠산에도 각처에 카르형태의 지형이 있어 빙하퇴석과 같은 퇴적물은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카르일지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 그것은, 현재의 산의 형태를 만든 다이세츠산의 화산활동이 빙하가 발달한 최종 빙기보다 후의 보다 온난한 시기까지 계속 되고 있었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폭발화구가 카르를 닮은 지형이 되는 경우도 논란이 되는 하나의 이유이다.